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5호 [주제 제26079호] 주제 107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 양묘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 양묘장을 현지
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간부들이
황병서동지, 한광상
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와 양묘장
의 일꾼들이 맞이하
였다.

2년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
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들에도 122호 양묘장과 같이 한 해에
2,000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토지 절약형, 로벽 절약형
양묘장을 건설하며 시범적으로 강원도 양
묘장을 도틀에 건설하는 양묘장들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릴 때 대한 파업을
제지하고 설계와 시공, 자금과 자재, 설
비보장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며 양묘장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꾀하는 심장마다에 뿐만 아니라
수십 정보의 면적에 수지경관온실,
야외재배장, 원형 재배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
산구역과 관리청사, 종합편의시설, 살림
집 등 57개의 건물과 시설물을 갖춘 현
대적인 양묘장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이제 나서제나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신
영광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양묘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간 2,0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
기지가 또 하나 럿들어지게 일떠선
데 대하여 기쁨을 금지 못하시며 강
원도에서 방대한 공사를 짤은 기간
에 완공하고 지난 1년간 양묘장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대책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안전하
게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대체를
흔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풍만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밀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자연원료기지
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창파도 같은 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 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고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에서 양묘장의 모든 요소를 우리
당의 승고한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
용성이 보장되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웠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도의
건설력이 강화되고 기능 공대력이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 산림조성사업에
서 실지 역할을 보고 온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묘장 건설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기
본적으로 도자체로 생산보장하였으며
경기질생산과 종자선별 및 파종에 필
요한 설비들을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해당 기관들에서 제작설치함으
로써 민족활만하고 자랑할만한 국
신화비중을 보장하였는데 정말 기분
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7. 27 이 새겨주는 역사의 철리

위대한 선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꿈없는 환희와 궁지속
에 전승절을 맞을 때면 우리 군
대와 인민은 이를 할수 없는 걱
정과 함께 회복으로 젖어드는
심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위대한 승리의 7. 27!

조용히 불리던 보아도 자주적
인민, 자주적군 위령의 궁지와
자부심으로 그 얼마나 우리 가
슴 놀뛰게 하는 것인가.

3년간의 전쟁,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영혹한
시련이었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지 5년,
정구무역을 전진한지는 2년밖
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적이간의 혁성장대비가 인민
는 이 월에 한 전쟁의 운명에 대
하여 세계 수안한 인민들이 깊
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친는 가령
한 반기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뛰월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켜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領導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밟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흔년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
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갈작봉의 백발불길의 용감영웅
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강호영
웅, 그는 해방전 운동의 두마

산풀에서 태어났다. 조성을 깐
귀를 절어궁궐에서 태어난 화전
인의 아들에게 차례진것이란 토
스케마대가 전부였다. 사시절
토스케 웃 헌법을 걸치고 살아가
는 그는 『갑산거지』로 불리우
며 온갖 수도와 면시를 다 받아
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리를 찾
아주신 그때에야 그는 저주로운
토스케 웃을 벗어던질 수 있었
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그는 계
급의 무기, 혁명의 총대를 품어
장았다. 다시는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

1 2 1 1 고지방위자들이 불
리는 전호에서 춘행에 편지의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
을 만나서였다.

이것은 1 2 1 1 고지의 영웅
전사들만이 아닌 인민용사들
모두의 가족속에 물어버린 불
굴의 신념이고 원우격렬의 의
지였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은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을 관자로 품어
죽임을 걸친장에서 빠져 부서
지고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수명이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
여 훌수들을 무찌르고 조국땅
을 퍼포여 수사하였다. 인민군
용사들은 불통은 적의 화장을
몸으로 막아 부대의 틱터로를
얼어놓았고 턱으로 종기의 압
력을 놀려 원수들을 철에 휘
였다. 『나의 고지』 운동의 봉
회를 펼쳐들고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지켜냈고 나성의 풀으
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푸른 흙으로 죽어 참된 삶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여기는 1 2 1 1 고지 전호속
에서 전호벽은 뿐이며 고지의
법률과 조선인의 아직도 서리
여 있습니다. 이로연이 가시기
전에 원수들은 또 밀려올 것을

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
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의 손자를 목숨으로 사수하
며 일보도 후회하지 말라고 하
신 명령을 높이 달고 고지
를 피로써 지키겠습니다. …

사랑하는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립과 평화롭
고 맑할수 없었고 바라는 모든
것 역시 수령님을 떠나 생각조
차 할 수 없었던 우리 군대와 인
민이었다.

우리 수령님과 법동농민사이
에 있은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것인가.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
을 만나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는가고 물
으시였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복
으로 간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찾
아가는 길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
기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직지를 본간하고 어려운 카풀
한 밤이 나라의 정부한 능민이
스스럼없이 한 말은 그대로 싸
우로 전해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까지 적들의 1 7 차례의 공격
을 물리쳤다.

그들은 누구나 해방전 식민지
노예의 술을 속여 몸부림치던 사
람들이었다.

사랑하는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립과 평화롭
고 맑할수 없었고 바라는 모든
것 역시 수령님을 떠나 생각조
차 할 수 없었던 우리 군대와 인
민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
이시여! 수령님의 아들들이 위
리가 살아있는 한 1 2 1 1 고지
는 영원히 조선인민주의인민공
국의 고지로 솟아있을것입니다.

우리 수령님과 법동농민사이
에 있은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것인가.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
을 만나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는가고 물
으시였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복
으로 간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찾
아가는 길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
기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직지를 본간하고 어려운 카풀
한 밤이 나라의 정부한 능민이
스스럼없이 한 말은 그대로 싸
우로 전해졌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복
으로 간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찾
아가는 길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
기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자
신들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다
는 철의 신념을 알고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왔다. 해방된 조
국에서 땅과 물상의 주인, 나라
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마음
으로 적땅으로 죽어 참된 삶을
을 알아낸 조국과 민족의
진정성이 되어 있다.

